



해외양계업은 지금...

브로일러 사료에서 칼슘 및 인 제거

알칸사스 대학에서는 브로일러 사육시 42일령에서 49일령 사이에 칼슘과 인의 보조급여를 중단했을 경우 브로일러의 성장, 도체(Carcass Composition) 골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했다.

브로일러 후기사료에서 비타민, 미량 광물질 등을 제거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양관리 추세이지만 영양학자들은 아직도 브로일러 후기사료에 비타민과 미량광물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경험에 의하면 출하전 7~10일경부터 이러한 영양소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성장율, 사료효율 기타 성장에 아무런 영향없이 사료비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었다.

알칸사스 대학에서의 실험은 42일령에서 49일령 사이의 후기사료에 인산이석회(dicalcium phosphate)와 석회석을 각각 또는 모두 제거한 상태로 급여했더니 증체, 사료섭취, 효율, 폐사율, 지육율, 복부 지방침착, 경골길이 등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으나 골격강도(bone break strength)가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로 인한 가공공장에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육계말기에 칼슘과 인의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브로일러의 성장이 아무런 영향 없이 사료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E.Coli 를 예방하는 최선책-위생관리

오늘날과 같이 고밀도 양계를 하는 양계산업에서 E.Coli 는 주요 질병 중의 하나이다.

계사벽이나 난각, 깃털에서 몇주간씩 생존할 수 있는 매우 저항력이 높은 스트레인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사양관리와 위생상태를 강화하는 것이다.

E.Coli 감염과 관련된 두가지 형태의 질병은 대장균세균증(Colibacteriosis)와 대장균육아종증(Coligranulomatosis)이다.

이중 대장균세균증은 밀집사육 농장에서 더욱 심하고 전세계적으로 발병된다. 이것은 전일령에 걸친 폐사와 태아사망, 그리고 병변으로 인한 도체오염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다.

어느 곳에서 발명되나?

대장균세균증은 주로 닭과 칠면조에서 나타나지만 오리나 거위에서도 발병된다. 이는 실제로 모든 그금류가 악성 E.Coli 스트레인에 감염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성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감염질병인자로부터 감염이 되어 대장균세균증은 대부분 2차적 질병원인으로 작용하며 병리적 증상은 단독감염보다 더 심하게 나타난다.

해외양계업은 지금...



대장균증 단독감염 계군의 경우 2~3주동안 약 5~10%만이 임상적 증상을 보인 후 다시 건강을 회복하며 다른 계군중 5~10%가 질병형태로 나타난다. 전산란기간후 단지 일부만이 변동폭을 지니며 감염되게 한다.

이런 현상은 개체관리로 임상적 관찰을 실시하고 계란생산과 계란감염을 매일 점검하는 계군에서만 가능하고 실질 감염계군을 폐사율은 매월 1~2%가 될 것이다.

어린 닭의 감수성

백색 레그혼이나 Rhode Island 와 같은 산란계는 이 질병에 더욱 감수성이 있게 된다.

산란초기에 있는 어린 닭들에게 더욱 빈번히 발생되며 초기에는 급성혈을 떠나 나중에는 만성형을 나타낸다.

발병율과 조악한 위생상태(다습, 높은 암모니아, 불충분한 비타민 A 및 E, 기생충성 질병, 수송, 백신 등)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산란기간을 통틀어 유전적 잠재 산란능력에 비해 10~20%나 낮은 산란율을 나타낸다.

계란감염

대장균세균증을 앓고 있는 산란계는 악성대장균증에 감염된 계란을 낳게 된다.

감염후 2주일까지의 계란을 통한 감염은 20~30%에 달하며 두달이 되어도 계란의 5%가 E Coli 균을 보유하게 된다.

E Coli 에 의한 감염과 대장균세균증의 발병은 전 계군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질병의 진행과 E Coli 의 계란감염은 계군별, 부화시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전산란기간 중에는 거의 동일하게 된다.

감염된 대부분의 계태아는 부화 중에 죽어 버리며 극히 일부만이 부화를 하게 되나 병아리는 매우 약하고 결국은 도태 시키게 된다.

계군간 살균소독

감염된 계군의 알에서 태어난 병아리는 대장균세균증으로 첫주동안 1~2%의 폐사율을 보이며 후에 폐사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 4주령에서 최고의 폐사율에 도달하게 된다.

배출된 E Coli 는 오랫동안 생존할수 있기 때문에 오염된 계사와 기구는 계대간 중요한 감염원이 된다.

그러므로 올인 아웃 방식을 택하도록 하면서 입추전, 출하후 계사의 살균소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양계